

# KTX 타고 여수박람회·완도 '원스톱 관광'

## 완도군, 철도공사와 연계 여행 상품 협약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96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이 여수 박람회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완도를 연계 관광할 수 있도록 KTX 연계 여행상품을 개발했다.

완도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강칠순 서울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고속 철도망을 통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관람하고 완도를 방문하는 '기차 타고 건강의 섬 완도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군은 전라선 KTX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행사와 연계한 완도의 관광자원, 역사문화유산, 지역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 KTX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또한 군은 여수 세계박람회와 F1 대회,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 2014 완도 해조류박람회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전략적인 철도여행 상품을 개발,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의 장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완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청산도,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보길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청산도와 보길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공, 진도 벽파리에 복지회관

### 건강관리실·목욕탕 등 갖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어촌마을 시범모델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진도 벽파리 다목적 복지회관이 지난 3일 완공됐다.

'어촌마을 시범모델 개발사업'은 주민복지형과 어촌명소화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낙후된 어촌 마을 주민의 복지향상과 자연환경, 어촌경관을 활용한 명소화 마을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벽파리 다목적 복지회관은 고령화 어촌사회에 부합하는 주민복지형으로 총 사업비 8억5000여만원을 들어 부지14164m<sup>2</sup>, 건축면적 398m<sup>2</sup>,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다.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청년회의실, 건강관리실, 특산물판매장, 공동목욕탕 등의 공간



을 갖췄다.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낸·난방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됐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진도군을 비롯해 고창, 충남 홍성·서천, 경북 울진, 경남 남해 등 6개 군을 대상으로 '어촌마을 시범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무안군의회 홈페이지 엄망

### 추경안·사무감사·정례회 등 소통 관리 안돼

무안군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제195 정례회기와 최근 196, 197회 임시회기 동안 2012년 본 예산안 3213억 4500만 원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행정정리 추경안·행정 사무감사·한 중 미래도시 개발사업 금융자금(2800억 원) 조달심의 의결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나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군의회 홍보와 군민과의 소통을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 이모(47·해재면)씨는 "정보화시대에 군의회가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군수 사퇴 이후 군정 경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 정길수 운영위원장은 "정례회와 임시회기에 처리했던 안건들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을 바쁜 일정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 관계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이어지며 처리 안건이 많아서 오탏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관리를 못 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정리해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청렴 해남 만들겠습니다

해남군은 최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해남 만들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군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 이수 확대', 청백 공무원상 포상제도 운영, '1부서 1청렴시책 발굴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ejchung@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목포보건소, 맞춤형 방문 보건 서비스 선언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목포시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목포시보건소(소장 김일용)는 올해 국민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사회에서 소외받는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보건행정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간호사 11명으로 방문보건팀을 구성해 지역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00여 가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 사업은 방문보건팀이 각 가정을 주 1회 이상 방문해 혈압 등

기초검진·투약·보건교육·건강 상담·사례관리와 함께 가사도우미·반찬서비스·말벌·집수리 등 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 추진된다.

또 한방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매주 2회씩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세대 등 180세대를 방문해 침·뜸시술 및 탕약을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41명이 합격, 80%의 높은 합격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시험은 나주운전면허 시험장(시험장 고재연)이 직접 출장시험을 실시해 낙도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펼쳤다.

현재 낙도 경찰서장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해 주민들을 위한 시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완도경찰 낙도 주민에 운전면허 특강 호평

실에 착안해 손수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 돋움에 발벗고 나섰다.

정 소장은 바쁜 시간을 조개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운전 면허시험 강의와 이론·실기 등 교육을 실시했다.

정 소장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수단이 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

## 전 북



하늘에서 바라본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인 순창군 풍산면 향가마을 일원. 군은 이곳에 오는 2013년까지 오토 캠핑장(1만3700m<sup>2</sup>)과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창군 제공〉

## 순창군 섬진강변에 오토 캠핑장

### 향가마을 일대 5만6900m<sup>2</sup> 97억 투입 관광개발

인근 건강휴양 체험장은 6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5일 순창군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이후 급증하는 캠핑족 유치를 위해 순창군 풍산면 향가마을 일원 섬진강 주변 5만6900m<sup>2</sup> 면적에 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3년까지 오토 캠핑장과 옥출산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산책로와 쉼터가 조성되는 '숲속 체험지구'와 캐리반(캠핑이 가능한하면서 앤진이 없는 트레일러 모양의 차)·숙박동, 애영장 및 부대시설이 있는 '건강 휴양 체험지구'로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자동차 애영장과 건강 휴양 체험장, 산책로, 쉼터,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섬진강과 일대 자연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옥출산 전망대는 이미 지난 해 10월 완공했고 산책로와 쉼터는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의 자전거 길을 개설, 섬진강과 주변의 자연자원을 감상하게 할 방침이다. 인근의 산업시설 부지는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민간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섬진강 일대를 자연을 보존하면서 휴식, 건강, 체험이 있는 곳으로 꾸밀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나눔캠페인 42억 모금... 사랑의 행복온도 109도

도내 '희망 2012 나눔캠페인' 결과 사랑의 행복온도가 109도를 기록했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거주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생활 주민 등 40여만명의 저소득계층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많았고 기업기부 29%, 기타 9%였다. 1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거주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생활 주민 등 40여만명의 저소득계층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임대 아파트 분양

오는 8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최초의 공동임대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5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에 따르면 한성개발(주)이 군산시 오식도동에 89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빠르면 8월께 완공

분양할 계획이다. 평형대는 16평형(120가구), 25평형(772가구) 등 2개 타입이다. 새만금 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공장 직원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아파트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익산시 농업분야에 6년간 2150억 투자

익산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해 6년간 2150억원을 투자해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축산분야에 160억원, 원예분야에 132억원

등 총 30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정읍시에 이어 농산물 생산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정읍천지키기 시민행동 출범, 본격 활동

'정읍천지키기 시민행동'(집행위원장 유중일·이하 시민행동)이 최근 수성지구 근로복지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읍시와 시민행동은 지난달 말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공사를 점검 중단하고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전문가와 민·관·공

동매체 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정읍천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모으고, 희망의 씨앗 뿌리기와 하천생태 지킴이 양성교육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중소기업 경영·기술 종합 처방 지원”

### 안병수 전북中企청장

“경영·기술 등 종합처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안병수(53)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이 단순지원으로서 문제해결 형 지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밝혔다.  
광주 출신인 안 신임 청장은 전남 대표공학과를 졸업했다. 전북중기청 기업 지원총괄과장,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장·기술협력과장, 광주·전남 중기청 청업성장 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김제경찰,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순찰체험

김제경찰서는 '학교폭력 주방 원년의 해'를 맞아 지난 2일 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공동 순찰체험에 나섰다. 이날 순찰은 경찰지휘부와 학부모, 학생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주변 및 치안강화 구역을 순찰한데 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이상주 서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기회를 더욱 확장해 학교폭력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